



미 증시, 연준위원들 매파적 발언에도 강세

미국 증시 리뷰

7 일(화) 미국 증시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미 단기채 입찰 호조 및 시장금리 하락, 긴축종료 기대감 지속 등에 힘입어 상승(다우 +0.17%, S&P500 +0.28%, 나스닥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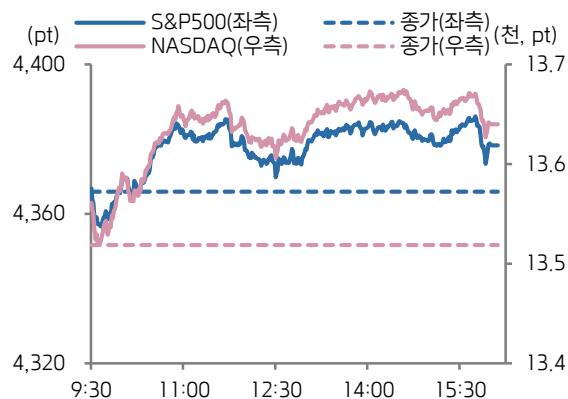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금리를 미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마셀 보면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을 적시에 2% 목표치로 낮추려면 연방기금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고 계속 예상하지만 들어오는 데이터와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평가하는 동안 현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지난주 FOMC 의 결정을 지지했다"고 언급. 향후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된다면 연방기금 금리 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

미국 9 월 무역 적자는 615 억달러(예상 -598 억달러, 전월 -587 억달러), 2020년 이후 최저 증가폭 기록. 수출 2.2% 증가, 수입 2.7% 증가했으며 상품수지 적자 863 억달러, 서비스 수지 흑자가 248 억달러 기록. 미국 기업들이 연휴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재고를 비축하며 소비자 수입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대외 무역 기업에 희토류 거래 시 실시간 보고를 의무화하며 수출 단속 강화. 희토류 무역업자는 원산지와 계약 체결 날짜, 수량, 선적 및 도착 내역, 통관을 위한 도착항 등을 포함한 실시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규정은 2년간 지속. 갈륨·게르마늄 등 반도체 소재에 이어 희토류 수출글 무기화한 것은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를 확대한 미국에 대한 맞대응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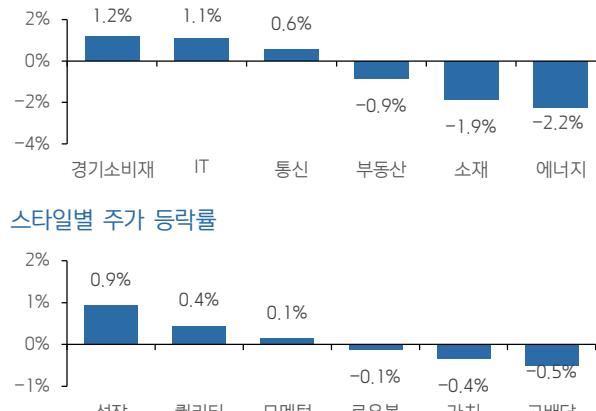
업종별로 경기소비재(+1.2%), IT(+1.1%), 통신(+0.6%) 강세, 에너지(-2.2%), 소재(-1.9%), 부동산(-0.9%) 약세. 우버(3.7%) 3 분기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한 반면, 차량공유 및 배송사업에서 중요한 지표인 총예약이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 월간 활성 이용자수 15% 증가하며 컨센서스 상회. 소비자들이 제품에서 서비스로 지출을 전환하는 추세속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며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43.96	-2.33%	USD/KRW	1,308.02	+0.79%
코스피 200	327.29	-2.06%	달러 지수	105.50	+0.27%
코스닥	824.37	-1.8%	EUR/USD	1.07	+0%
코스닥 150	1,333.45	-2.18%	USD/CNH	7.28	-0.02%
S&P500	4,378.38	+0.28%	USD/JPY	150.36	-0.01%
NASDAQ	13,639.86	+0.9%	채권시장		
다우	34,152.60	+0.17%	국고채 3년	3.883	+0.3bp
VIX	14.81	-0.54%	국고채 10년	4.056	-0.1bp
러셀 2000	1,733.15	-0.28%	미국 국채 2년	4.918	-1.7bp
필라. 반도체	3,471.46	+0.77%	미국 국채 10년	4.567	-7.7bp
다우 운송	14,438.60	-0.44%	미국 국채 30년	4.725	-8.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153.37	-0.13%	WTI	77.37	-4.27%
MSCI 전세계 지수	665.45	+0.4%	브렌트유	81.53	-4.29%
MSCI DM 지수	2,889.44	+0.2%	금	1973.5	-0.76%
MSCI EM 지수	968.91	+2.18%	은	22.59	-2.78%
MSCI 한국 ETF	61.65	-1.64%	구리	367.9	-1.0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4%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1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8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2.9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유가 하락, 금리 하락 등 양호한 매크로 환경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공매도 금지 여진이 만들어내는 이차전지주 중심의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
3. 에스엠, 카카오뱅크, 신세계 등 주요기업들의 실적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에 "인플레이션이 2%로 복귀해야 금리 정책이 종료된다"는 시카고 연은 총재, "금리인하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등 주요 연준인사들은 매파적인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지만,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은 마무리 됐으며 시장금리도 이미 고점을 봤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

차주 예정된 CPI, 소매판매 등 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기는 함. 다만, 양호했던 미 3년물 입찰 결과, 현재진행형인 이스라엘 전쟁에도 수요 부진 등으로 인한 WTI 유가 80달러 하회, 4분기 미국 경기둔화 전망 등을 감안 시 금리가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지난 10월 급으로 발생할 여지는 낮을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단기 폭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솟커버링 종료 전망 등이 이차전지 업종 폭락, 매도 사이드카 발동 등 수급 상 하방 압력이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면서 급락(코스피 -2.3%, 코스닥 -1.8%). 금일에는 4.5%대로 재차 하락한 미 10년물 금리, 유가 급락(-4.2%) 등으로 인한 미국 빅테크주 강세에도, 공매도 금지를 둘러싼 기대감 vs 실망감 등의 여진이 지속됨에 따라 전일에 이어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지금 국내 증시는 공매도 금지 이후 2거래일동안 코스닥이 매수 사이드카 발동 직후 다음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양극단을 오고 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는 모습. 또 공매도 금지 첫날 주가 급등 시 공매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있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둘째 날 주가 급락이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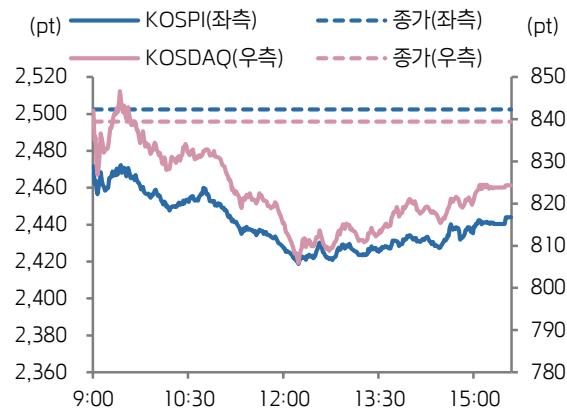
'23년 5월 자본시장연구원의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에 인용된 국내외 논문들을 살펴보면, 한국 증시에서도 공매도가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존재하며, 이는 지난 2거래일 동안 발생했던 극단적인 수준의 주가 폭등락을 뒷받침하는 요인. 공매도 금지 재개 이후 단기적으로 양(+)의 초과 수익률이 관찰되며, 공매도 재개 이후 단기적으로 음(-)의 초과 수익률이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 그에 반해 2010년~2022년 4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건수가 127 건이며, 적발 주체가 외국인(전체 94%)이라는 점을 감안 시,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위법성 공매도 문제를 개선해야하는 것도 국내 증시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

결국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아닌 상황 속에서 시행한 공매도 금지 결정, 이를 둘러싼 논란은 매크로 상황과는 별개로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들의 주가 및 수급 변동성을 확대시킬 전망. 그 가운데, 금일 장 마감 후 공개되는 거래소 통계상 공매도 금지 첫날에 얼마만큼의 솟커버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한층 더 확대될 전망.

11월 3일자 기준으로 코스피의 공매도 잔고(11.0조원 vs 연초 9.2조원)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0.62% vs 연초 0.53%),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6.0조원 vs 연초 2.8조원)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57% vs 연초 0.89%)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 공매도 잔고비율(공매도 잔고수/보통주 상장주식수) 관점에서도 현재 호텔레저(1.83%), 디스플레이(1.50%), IT 가전(1.06%), 화학(1.02%), 건강관리(0.44%), 철강(0.36%) 등 주요 업종들의 잔고 비율 변화에 따란 업종별로도 수급 변동성이 상이 해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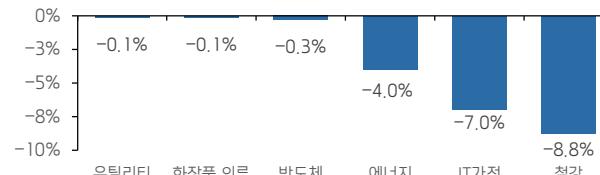
공매도 금지로 인해 주가 방향성을 가늠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 하지만 공매도 이슈에 묻혀있는 기업 실적 전망, 금리 변화, 코스피 실적과 밀접한 미국 경기 향방 등 기준의 펀더멘털과 매크로 이슈에 주목하면서 현재의 수급 변동성 장세를 대응해 나가는 것이 대안이라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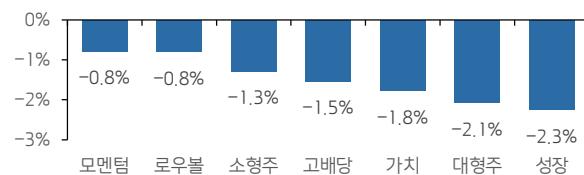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